

IDF WPR Diabetes Jamboree 2005

‘당뇨를 넘어선 우정’



“We are not DIABETIC, We just have diabetes.” (우리는 ‘당뇨병환자’가 아닙니다. 그저 당뇨를 가지고 있을뿐.)

제 1형 당뇨를 15년간 앓고 있다는 태국의 한 젊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얼굴색도, 언어도, 사는 곳도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당뇨병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의 주제였다.

서태평양 지역의 당뇨인들이 모여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우정을 다지는 IDF WPR Diabetes Jamboree 2005 (세계당뇨연맹 서태평양지역 당뇨잼보리 2005)가 지난 10월 22일(토)~25일(수)까지 태국 방콕 앰배서더 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지난 해 인천에서 열린 IDF WPR Diabetes Jamboree 2004에 이어 2회째를 기록한 이번 행사는 ‘Friendship beyond Diabetes(당뇨를 넘어선 우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었다.

한국, 태국, 몽골, 캄보디아, 일본 등 서태평양 지역의 당뇨인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3박 4일간의 일정을 함께 했다.

10.22 (토) - 환영의 날

행사장인 방콕 엠베서더 호텔에 도착한 참가단들은 점심식사와 접수를 마치고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의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나누어 갖고 자신이 받은 목걸이에 적힌 참가자들을 찾아가서 소개와 인사를 나누었다. 또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인슐린, 당뇨병과 행복한 삶 등의 주제로 팀을 만들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저녁에는 퀸 시리킷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세계당뇨연맹 서태평양지역 회의' 개최식에 참석하여 만찬을 함께하고 환영행사에 초대된 태국 전통 무용단의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0.23 (일) - 배움의 날

대회 둘째날인 23일에는 오전부터 강의를 이어졌다. '당뇨와 함께하는 건강한 삶', '어떻게 건강의 목표에 접근할 것인가', '당뇨병의 새로운 치료양식' 등의 주제로 의료진과 환자들의 발표와 질문이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태국 전통 마사지와 발 관리법을 배워보는 워크숍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직접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사지법을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10.24 (일) - 휴식의 날


대회 셋째날인 24일에는 참가단이 함께 태국의 명소를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양

World Diabetes Day

식으로건축되어 태국 특유의 불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사원들과 왕궁들을 현지 가이드의 자세한 소개와 함께 관람할 수 있었다. 중국, 인도, 유럽과 인도차이나의 여러나라의 불교문화가 공존하는 태국의 문화재들과 함께 일상속에서 부처와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태국인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였다.

저녁 만찬과 함께 열린 송별파티에서는 각국 참가단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고유의 춤과 노래를 준비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당뇨협회 홍보대사인 텔런트 김성원씨가 아리랑과 뮤지컬 '올고넘는 박달재'의 테마곡을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태

국 참가단의 춤과 노래에 맞춰 모두가 일어나 함께 춤을 추는 흥겨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송별의 밤 행사를 끝낸 참가자들은 함께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당뇨병을 치료하려는 노력과 교류가 계속될 때, 당뇨인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각국의 당뇨인들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다음 잼보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해 본다. 

글 박혜선 기자



태국 사원 관광



한국 참가단 발표 모습



다함께 춤을



다음 잼보리에서 다시 만나요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 - 2005년 주제, 당뇨병과 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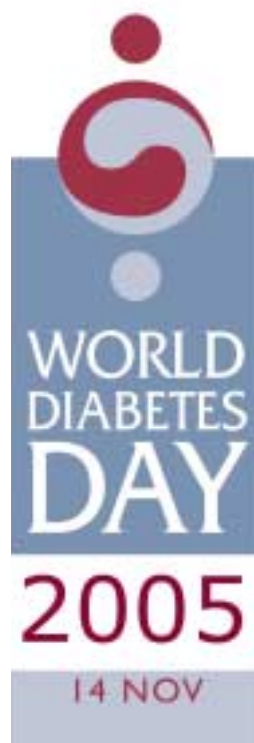
매년 개최되는 당뇨병주간

매년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이다. 이 날은 중요한 당뇨병 인식 캠페인으로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적 차원의 당뇨병 홍보를 위해 199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당뇨병연맹(IDF)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다. 11월 14일은 1921년에 인슐린 발견한 프레데릭 반팅 박사의 생일을 기념한 날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당뇨병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130개 이상의 국가의 IDF 회원단체에 의해 기려지는 이 세계적인 행사는 당뇨병 인식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제적인 당뇨병 공동체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1991년 이후 많은 호응 속에 성장한 세계 당뇨병의 날은 현재 당뇨병 환자들은 물론 전문의, 간호사, 약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를 포함한 전세계의 3억5000만 명 이상을 하나로 묶는다. 따라서 세계 당뇨병의 날은 의학 및 사회적인 발전을 축하하고,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구조가 여전히 부족함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세계 당뇨병의 날 로고

1996년에 디자인 된 이 로고는 세계 당뇨병 날에 대한 세계적 동일성을 창출하는 중심이



된다. 이 로고는 잘 알려진 동양철학의 음과 양의 상징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균형과 협동의 조합을 표현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의 중심을 이루는데, 인슐린, 약물투여, 식사요법 및 운동의 균형이 의료진, 동료, 친구와 가족 사이의 협력만큼이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뜻하고 있다.

매년 새로운 주제

매년 세계 당뇨병의 날은 당뇨병인들에게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는데, 2001년 이후에는 당뇨병의 합병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년의 세계 당뇨병의 날 주제는 당뇨병과 인권(1998년), 당뇨병의 비용(1999년), 새로운 밀레니엄의 당뇨병과 생활양식(2000년),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2001년) 등이다. 올해는 당뇨병과 관련한 발 합병증을 다루고 있다. 

2005년 전국 병원 당뇨주간 행사

11월 당뇨주간을 맞아 전국의 병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 당뇨병도 공부하고 운동도 하면서 당뇨관리를 새롭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성바오로병원

일시 : 11월 15일(화) 오전 10시~12시
프로그램 : 공개강좌, 콜레스테롤 수치 및
혈당측정, 혈당기 교환
장소 : 별관 7층 강당
문의 : (02) 958 - 2114

삼성서울병원

일시 : 11월 9일(수) 오전 9시~12시
프로그램 : 혈당검사, 당뇨상담, 당뇨강의
장소 : 대강당
문의 : (02) 3410 - 2138

영동세브란스병원

일시 : 11월 8일(화) 오전 8시 30분~12시 30분
프로그램 : 혈당·콜레스테롤·비만도 측정,
당뇨상담, 당뇨강의, 체험담 발표,
도시락 제공
장소 : 본관 3층 대강당
문의 : (02) 2019 - 2114

경기

인하대학교병원

일시 : 11월 5일(토) 오전 8시 30분
프로그램 : 강화 마니산 당뇨인 산행,
혈당측정 및 당뇨도시락 제공
문의 : (032) 890-2215 (당뇨클리닉)

강원

원주기독병원

일시 : 11월 3일(목)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프로그램 : 혈당·고지혈증·체지방 측정,
당뇨병공개강좌 및 당뇨부페,
매지리(임도림) 등반
장소 : 원주의과대학 대강당
문의 : (033) 741-0941

춘천성심병원

일시 : 11월 4일(금) 오후 2시
프로그램 : 당뇨병 공개강좌
장소 : 9층 강당
문의 : (033) 240-5349